

해상 실크로드와 불교물질문화의 교류*

강 희 정**

요약

해상 실크로드, 혹은 남해로(南海路)라고 일컬어지는 해상루트는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물동량이 육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방대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기복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확대됐다. 육상이나 해상 실크로드 모두 단순한 물품 교역로 이상의 역할을 했다. 399년에 인도에 갔던 구법승 법현을 포함한 많은 승려들이 배를 타고 인도로 구법의 길을 떠났다. 이들은 불교 경전을 구하러 갔지만 불교와 관련이 있는 공양구와 의식을 베푸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오기도 했다. 불교가 중국과 한국에 전해진 이래, 동남아시아 지역의 나라에서는 교역을 위해 다양한 물품을 가지고 동북아시아로 왔는데 이중에는 불교 관련 물품이 적지 않았다. 불상이나 보살상, 사리탑, 기타 불구만이 아니라 향료에 피우는 향이나 음식, 약재를 만드는데 쓰는 각종 식물, 혹은 불교 관련용품의 재료가 되는 광물질도 포함됐다. 정향, 설탕, 용뇌, 후추, 침향 등 식물과 대모, 비취조, 앵무새 등 동물도 해상실크로드의 주요 교역품이었다. 향과 같이 불교적으로 중요한 물질, 사리와 향목처럼 신성과 직결되는 것이 포함된다. 불교 자체는 인도에서 시작됐으나 물질을 통한 불교의 대중화에는 동남아를 통한 바닷길 교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실크로드는 물품을 사고팔기 위해 개척한 길이면서 동시에 문화가 오고가는 문명의 교차로였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362-2008-1-B00018).

** 서강대학교 교수 esvara@sogang.ac.kr

주제어: 해상 실크로드, 물질문화, 사리, 전단향, 침향, 정향, 비취조, 푸난, 판판, 페르시아

I. 해상루트와 불교문화

‘길’이라는 통로를 통해 각기 다른 지역에 자리한 문명과 문명이 만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일은 새삼스럽게 언급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잘 알려졌고,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뤄졌다. 동아시아 고대의 경우, 교역로 관련 연구는 주로 육로에 집중되었고, 그 가운데 동북아시아가 외부 세계와 통하는 길은 특별히 ‘실크로드’라고 불렸다.¹⁾ ‘실크의 운반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실크로드는 실크라는 한정된 재화가 가장 중요한 교역품이었던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어 나름의 역할을 충실히 반영하는 중요한 명명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육상으로 이어진 교역로 실크로드는 대륙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침이 있었고 안사(安史)의 난이 일어난 8세기 중엽 이후에는 그 이전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역할이 축소되었다.

바다로 이어진 교역로는 역사상 기록은 있었지만 꾸준히 확대됐다. 해상 실크로드, 혹은 남해로(南海路)라고 일컬어지는 이 해상루트는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물동량이 육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방대했기 때문에 점차 각광을 받았다. 육상이나 해상 실크로드 모두

1) 여기서 실크로드라는 말의 기원과 유통에 대해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실크로드-비단길이라는 용어는 비단이라는 재화에 초점을 맞추어 19세기에 처음 쓰이기 시작한 말이며 그만큼 역사적 개념임을 밝혀둔다. 실크로드라는 말이 처음 보이는 것은 독일의 지리학자 리히트호펜(Richthofen, 1833~1905)이 쓴 5권의 『중국(China)』(1877-1912)이라는 책이다. 그는 이 책 1권에서 중국과 서북인도를 잇는 교역로를 ‘자이텐슈트라센’(Seidenstrassen, 비단길)이라고 불렀다(Waugh 2007, 1-2).

단순한 물품 교역로 이상의 역할을 했다. 399년에 불법(佛法)을 찾아 실크로드로 인도에 갔던 구법승 법현(法顯)은 스리랑카에서 200명의 상인들과 함께 상선을 타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 시기부터 당대까지 많은 승려들이 배를 타고 인도로 구법의 길을 떠났다. 이들은 불교 경전을 구하러 갔지만 불교와 관련이 있는 공양구와 의식을 베푸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오기도 했다. 비단 승려만이 아니다. 불교가 중국과 한국에 전해진 이래, 동남아시아 지역의 나라에서는 교역을 위해 조공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물품을 가져왔는데 이 중에는 불교 관련 물품이 적지 않았다.²⁾ 실크로드는 물품을 사고팔기 위해 개척한 길 이면서 동시에 문화가 오고가는 문명의 교차로였다.

불교 관련 물품이라면 대개 불상이나 보살상, 사리탑, 기타 불구(佛具)를 연상하지만 여기에는 향로에 피우는 향이나 음식, 약재를 만드는데 쓰는 각종 식물, 혹은 불교 관련용품의 재료가 되는 광물질도 포함된다. 『삼국유사』에는 인도에서 아육왕(Aśoka)이 황철 5만7천근과 금 3만근을 인연 있는 땅으로 실어 보냈고, 이것이 마침내 경주 땅에 이르러 황룡사 장육존상을 만드는 재료로 쓰였다는 기록이 있다.³⁾ 이 기사는 ‘가섭불연좌석’과 함께 흔히 황룡사의 불국(佛國) 인연설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실제로 철광석이나 구리와 같은 광물 질은 중요한 해상 교역 물품 중의 하나였다.⁴⁾ 이미 445년에 베트남 중

2) 이 시기 조공은 군신 관계를 가장한 공무역이었다는 관점에서 이 글을 서술할 것이다(권덕영 2008, 15-17).

3) 장육상은 1장 6척에 해당하는 대형상을 의미하며 현재 기준으로 5.6m 가량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삼국유사』 「탑상편」에 의하면 아육왕이 보낸 광물을 진흥왕이 거둬 불상 조성을 시도하여 완성을 본 것은 574년경이다. 『삼국유사』 「皇龍寺丈六」에는 아육왕이 보낸 배가 河曲縣 絲浦에 닿았는데 이곳은 『삼국유사』가 저술되던 고려 지명으로는 울주(蔚州) 곡포(谷浦)라고 기록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까지 울주가 외국에서 오는 배가 닿는 중요한 항구였음을 알 수 있다.

4) ‘금 광산이 없이 금으로 장신구를 만들 수 없다(One cannot make exquisite gold jewelry without a gold mine.)’는 로위의 지적은 사시하는 바가 크다(Lowie 1937, 10; Kieschnick 2003, 17에서 재인용).

부에 있었던 참족의 나라 임읍에서 금 만근, 은 10만근, 동 30만근을 중국에 조공했다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Wang 1958, 48).⁵⁾ 광산의 유무나 매장량과는 별개로 철과 구리 등을 다루고 제련하는 것은 또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광석은 고대의 주요 교역물품이 됐을 것이다. 2004-2005년 사이에 인도네시아 치르본(Cirebon)에서 발굴된 난파선에서 주석괴, 납괴 등 여러 종류의 광물 덩어리가 다량 발굴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⁶⁾ 황룡사의 설화를 우리는 단순한 인연설화로 치부했지만 그 이면에 배를 통해 특정한 물질이 오고 갔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불교문화를 구성하는 물질적인 요소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물질을 논의의 중심에 두는 물질문화 연구는 특정한 물품이 서로 다른 시대와 지역의 공동체 사회를 비교하고 분류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사실상 종교에서 정치조직에 이르는 다양각색의 요소로 구성된 문명의 여러 측면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 선진과 후진으로 구분되는데, 대개의 경우 그 기준에는 물질문화의 발달 정도와 수준이 포함된다(Kieschnick 2003). 바꿔 말해서 문화나 문명을 연구하는데 물질을 도외시킬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물질의 물질로서의 속성만이 아니라 특정 물질을 어떻게 연구자들이 바라보고,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물질의 속성인 물성(物性)보다 이를 가공하여 어떤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만들고 그 가치가 어떤 방식으로 부여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물질문화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바닷길을 통해 오간 물질문화 연구는 그간 불교사에서 배제되거나 미술사적 양식 분석의 대상으로만 간주되었던 물질이 불교문화에서

5) 임읍, 참파의 광석 공물 기록은 『송사』에도 이어진다.

6) 출수 유물로 미루어 970년경에 침몰한 것으로 보이는 이 배에서는 다양한 광물질과 도자기, 공예품이 나왔다. 특기할 일은 다량의 검, 도랑형과 함께 소형 보살상과 석장 등의 불교미술이 같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최근 이 발굴에 직접 참여한 연구자의 박사논문이 간행되어 해상 교역로에 관한 좋은 참고가 된다(Liebner 2014, 319-332).

수행한 역할, 불교문화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II. ‘물질’로서의 사리 숭배와 사리의 이동

동남아로 처음 불교가 전래된 것은 기원전 3세기경 아쇼카왕이 수완 나부미에 사절단을 보낸 데서 비롯됐다는 설화적인 이야기가 전해진다. 흔히 실크로드를 통해 육로로 중국에 전해진 불교를 북방불교, 동남아로 전해진 불교를 남방불교라고 하지만 양자가 명확히 구분됐다고 할 수는 없다. 인도로부터의 불교의 전래는 완전히 서로 다른 문명과 문명이 만나는 것이다. 승려와 경전의 전래는 고차원적 종교로서의 불교의 구조와 체계를 구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불교문화는 의식(ritual)과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계율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으로 구성된다. 기존의 문화와 전적으로 다른 이질적인 불교가 중국에 전해지면서 중국의 물질문화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다(Kieschnick 2003, 1-17).⁷⁾ 새로운 물건(objects)과 물건에 관한 생각, 이들 물건과 관련된 행위에 관한 모든 것이 불교와 함께 전해졌다.⁸⁾

화장을 하고 성인의 유해를 숭상하는 관습이 없었던 동북아시아에 사리를 모셔 탑을 세우고 이를 숭상하는 일은 전적으로 새로운 문화이

7) 키슈닉은 object와 material을 특별히 구분해서 쓰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이어지는 부분은 물질, 물질적 풍요에 관한 석가모니의 거부, 중국 불교문화에서의 물질에 관한 이중적인 태도에 관해 언급하여 필자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에 있음을 밝혀둔다.

8) 물질문화 연구에서 물질이 과연 무엇이며 어느 정도 범위까지 여기 포함시킬 것인가. 이를 문화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흔히 논의되는 것은 물질(material)이라기보다 물품(object)이기는 하지만 굳이 양자를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민속학의 관점에서 물질문화로 문화 연구의 확장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다음의 글에 잘 정리되어 있다(배영동 2007, 233-264).

자 관습이었다.⁹⁾ 사리 숭배는 석가모니의 열반과 함께 초기 불교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는 신앙이다. 사원과 탑을 건립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사리는 불교의 근본을 상징하며, 석가모니의 진신으로 간주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석가모니의 육신의 일부인 사리를 통해 불교의 정통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에 사리를 처음으로 가져온 승려는 강승회(康僧會)이다(高僧傳 제1권 1998, 13-20).¹⁰⁾ 그는 248년 오(吳)나라의 수도 건업(建鄴)에 사리를 가져와 사리신이(舍利神異)를 보임으로써 사리가 영험한 ‘물질’이고 부처를 대신하여 신앙할 수 있는 대상임을 증명해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교지(交趾, 하노이) 출신이라는 점이다. 즉 그는 교지에서 사리를 가지고 오나라에 간 것이다. 성인의 유골인 사리에 대한 관념이 없었던 동북아시아에서 새롭게 사리를 만들거나 구할 수 없다. 하지만 사리가 없이 탑을 세울 수는 없고, 탑이 없이 사원을 건립할 수 없다. 이 사리들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사기(史記)』, 『후한서(後漢書)』부터 『수서(隋書)』, 『신당서(新唐書)』에 이르는 중국 정사(正史) 외국전에는 이른 시기부터 동남아의 여러 나라에서 사절단을 보낸 기록이 실려 있다. 사절단들은 푸난(扶南, Funan), 린이(林邑, Linyi)부터 판판(槃槃, Panpan), 슈리비자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왔다.¹¹⁾ 이들의 잦은 왕래는 후대의 모사본

9) 종족에 따라 다른 장례 풍습을 유지했던 동남아보다 화장이 동북아에 미친 파장은 컸을 것이다. 가령 푸난의 장례 풍속에는 水葬, 火葬, 土葬, 鳥葬이 있다고 『梁書』에서 말한다. 이미 푸난에서는 4세기경에 화장이 있었지만 한국의 경우, 불교 전래 이후 약 400년이 지난 후인 통일신라시대야 화장이 보급된 것으로 보인다.

10) 아직 불교가 널리 퍼지기 전이었기에 오의 손권이 佛의 영험을 믿지 않았지만 사리 신이를 보고 깨달은 바가 있어 건초사라는 절을 지어준다.

11) 동남아에서 온 많은 사절단들을 교역사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사절단이 가져온 교역 물건과 인근 항구의 역사에 관한 연구는 Wang(1958) 참조. 여기서는 해양 실크로드 대신 남해로라는 용어를 썼다. 푸난은 캄보디아, 린이는 중부 베트남, 판판은 말레이시아 북부에서 태국 남부에 걸쳐 있었던 나라이다. 거의 동남아의 모든 지역에서 사절단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이지만 <양직공도(梁職貢圖)>, <번객입조도(蕃客入朝圖)>, <왕회도(王會圖)>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¹²⁾ 그런데 이들 공식사절단 가운데 물질로서의 사리 그 자체를 가져다 바친 경우는 529년에 온 판판의 사절이 처음이었다. 판판에서는 중대통 원년(529)과 4년(532) 불아(佛牙) 사리와 화탑(畫塔)을 보냈고, 534년 8월에도 부처의 진신사리(眞身舍利)와 화탑, 첨당향, 보리수잎을 바쳤다.¹³⁾ 판판은 오늘날 말레이시아 북부에서 태국 남부 수랏 타니(Surat Thani)에 걸쳐 존재했던 나라로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약 5세기경부터 중국 및 주변국과 교류를 했다. 이 지역은 일찍부터 인도와 동남아시아, 중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판판이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¹⁴⁾

433년에 가라단(呵羅單, 자바 혹은 Kelantan 추정)국에서 온 사절들은 왕 비사발마(毗沙跋摩)를 대신하여 송 황제에게 표문(表文)을 올려 석가모니가 사리를 남기고 전 국토를 장엄하게 했는데 그중 가장 뛰어난 곳이 대송(大宋)이라고 한것 추켜세웠다(『宋書』 『外國傳』 夷蠻傳).¹⁵⁾ 435년에 사파파달(閻婆婆達, 자바 추정)국에서 온 사절들 역시 표문에서 석가모니의 사리가 유포되어 세상을 밝게 했는데 그중 가장 훌륭한 이가 송의 황제이며 주변 모든 나라가 그에게 복종하여 감로수의 혜택

12) <양직공도>는 북경 국가박물관 소장으로 송대 모본이지만 양대 소역(蕭繹)의 그림이 원작으로 알려졌다. 대만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번객입조도>는 南唐의 고덕겸이 그렸다고 전하며, 대만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왕회도>는 당의 염립본 작품이라고 하지만 모두 <양직공도>를 기반으로 그린 것으로 보인다. 양나라에 들어온 외국 사신에 당시의 관심이 높았던 것은 여러 곳에서 많은 사절단이 왔다는 『양서』의 기록을 뒷받침한다.

13) 중국 정사에서는 사리와 佛牙, 佛髮을 각기 구분해서 서술하고 있으나 현재 의미로는 佛骨 외에 佛頂骨, 佛髮, 佛牙를 모두 사리로 인정하므로 본 글에서는 이들을 같이 다루고자 한다.

14) 판판이 위치한 곳은 크라 地峽(Isthmus of Kra) 근방으로 크라 지협은 말레이반도에서 가장 폭이 좁은 곳이다. 선박제조술과 항해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고대에는 타이만(태평양)의 항구에서 배를 내려 육로로 크라 지협을 지나 반대편 안다만해(인도양)에 가서 다시 배를 타는 식으로 교통로가 발달했다. 이 크라 지협에 운하를 파겠다는 계획이 일대일로 정책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15) 가라단에서는 430년에도 사신을 보내 금강반지, 붉은 앵무새, 면포 등을 바쳤다.

을 받고 있다고 쓰고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반드시 갖다 바치겠다고 썼다(『宋書』「外國傳」夷蠻傳). 이들의 표문은 “석가모니의 뜻이 사리를 통해 구현”되며, 그로 인해 만들어진 태양이 밝게 비추는 듯한 염부리에서 송 황제가 사해의 왕 역할을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표문이 송 황제에게 보내는 찬사라는 점이 분명하지만 한편으로 사리가 부처의 뜻을 펼치는 매개물로 간주됐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미 5세기에도 교역을 위해 중국에 드나들었던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중국에서 불교가 매우 중요한 종교임을 알고 있었고, 그에 적합한 ‘조공품’을 가져왔다. 불교와 관련되는 물질 중에 사리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사리는 불교에서 의미가 큰 물질이지만 이를 가져온 사절들에게는 중국과의 교역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황제에게 바치고 교지(交趾)나 광주(廣州)의 항구로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것은 교역을 위한 선행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중국만이 아니라 인도, 동남아 내부의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으로 부를 쌓아온 이들은 교역을 통해 남기는 이득만큼이나 교역을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가장 높이 평가되는 품목을 바침으로써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었는데, 남조의 경우에는 사리였던 것이다. 사리는 단순한 유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아직 사리의 개념과 실체를 실물과 정확히 일치시킬 수 없었을 때 이를 전해준 것은 동남아시아였다. 중국 정사 외국전의 기록에는 판판과 푸난을 제외하면 사리를 조공물로 가져온 곳은 파사(波斯), 즉 페르시아 한 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불골(佛骨)이 아니라 불아(佛牙)였고, 불교의 법과 관련이 있는 표문을 올린 것도 아니었다(『梁書』「諸夷傳」, 226-227).¹⁶⁾ 따라서 비록 교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사리를 석가모니의 유흔의 상징이자, 불교문화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이를 선물한 것은 동남아 여러 나라가 어떤 의미로든 인도

16) 사리라고 쓰지도 않고 단지 치아를 바쳤다고만 나온다.

와의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사리의 중국 전래와 관련되는 미술이 1979년에 발견됐다. 중국 시안(西安) 교통대학 부지에서 공사를 하던 중에 발굴된 3점의 은합 가운데 한 점에는 코끼리로 사리를 모셔오는 장면이 묘사되었다(도 1).¹⁷⁾ ‘도관칠개국(都管七箇國)’이란 명문이 새겨져 <도관칠개국명옥판은합(都管七箇國銘六瓣銀盒)>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이 은합은 6개의 꽃잎이 있는 꽃 모양의 합으로 각각의 꽃잎에 고려(高麗), 바라문국(婆羅門國, 인도 추정), 토번(土蕃, 티벳), 소록(疎勒, 카슈가르), 백척△국(白拓△國), 오만국(烏蠻國, 운남 남부와 미얀마 북부)이라는 6개국의 나라 이름이 새겨졌다. 이들 6개국은 당이 건국 후, 전국을 평정하고 영토를 확장하면서 도호부를 설치했던 곳이다.¹⁸⁾



<도 1> 도관칠국인물문옥화형합, 당, 높이 5cm

흥미로운 점은 중앙에 코끼리를 타고 가는 인물이 있고 그 옆에 ‘곤륜왕국(崑崙王國)’, ‘장래(將來)’라는 글자가 새겨진 것이다. 코끼리

17) 이 은합은 6개의 꽃잎으로 이뤄진 연꽃 모양의 外函에다가 내부에 앵무문은합(鸚鵡文銀盒)과 귀갑문은합(龜甲文銀盒)이 있었다(張達宏·王長啓, 1984; 田中一美 1993, 15-30 참조).

18) 당의 세계관에 부합되는 나라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당을 중심으로 하는 ‘천하’를 나타낸 것이라고 본다(노태돈 2003, 39-40). ‘白拓△國’의 △는 독해 불가능한 글자를 표시한 것이며 어느 나라를 지칭하는 지 알 수 없다.

앞에는 향로를 들고 길을 인도하는 곤륜노(崑崙奴)가 있고 코끼리 위에 탄 인물은 사리를 운반하는 인물로 보인다(Kang, 2015). 그러므로 이 은합은 오늘날의 인도네시아로 생각되는 곤륜이라는 지역에서 사리를 가져온 일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田中一美, 1993). 명문으로 새겨진 ‘곤륜왕국’은 이 시기 해상제국으로 성장한 슈리비자야이거나 중국 사서에 나오는 하링[訶陵, 古마타람, 중부 자바]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구법승 의정(義淨)이 『남해기귀내법전(南海寄歸內法傳)』에서 법을 구하러 인도에 가는 승려라면 누구나 슈리비자야에 머물며 불법과 산스크리트를 공부하라고 권했던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슈리비자야는 해상 루트를 이용하는 승려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이었다(I-Tsing, 1982). 은합에 새겨진 장면은 6개의 꽃잎이 상징하는 6개 나라가 한가운데 묘사된 곤륜왕국에서 가져온 사리를 함께 나눠가진 일을 표현한 것이라고 추정된다(田中一美 1993, 25-30).¹⁹⁾ 곤륜왕국이 인도네시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거기서 사리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당나라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점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석가모니의 사리를 전해준 곳이 인도가 아니라 곤륜, 즉 동남아시아라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불교와 그 문화가 다시 중국이라는 통로를 거쳐서 전래되는 경우이므로 이와는 약간 다르다. ‘검은 얼굴의 호인’을 뜻하는 묵호자(墨胡子)와 마라난타는 인도나 동남아시아 출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 『고승전(高僧傳)』 등에는 사리가 ‘홀연히 나타났다’고 해서 신비성을 강조하거나 사리의 기적을 강조하여 물질로서의 사리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숨기려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한국은 이보다 오히려 명확하게 출처를 밝힌 경우가 적지 않다. 신라에서

19) 그는 이 모티프가 석가모니 입멸 후, 그의 사리를 8곳으로 나누어 탑을 세웠다는 불교의 8분사리를 그대로 따른 중국판 분사리(分舍利) 장면이라고 추정했다(노태돈 2003, 38-41).

진흥왕 때인 549년에 양나라의 사신 심호(沈湖)가 사리 몇 과를 가져왔다는 기록과 『삼국유사』<전후소장사리(前後所將舍利)>조에 자장법사가 정관 17년(643) 당에서 불정골, 불치, 사리 100과를 모셔왔다는 대목이 그것이다(『三國遺事』卷第3「塔像」편).²⁰⁾ 심호가 양나라에서 가져왔다는 사리는 시기적으로 판판이나 푸난이 적극적으로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사리를 바쳤던 때이다.

또 한국 기록은 아니지만 당나라 때 도선(道宣)이 편찬한 『광홍명집(廣弘明集)』에 실린 이야기도 주목할 만하다. 수나라 문제(재위 581-604)가 인수년간(601-604년)에 사리장엄을 발원하고 전국 각지에 탑을 세워 사리를 안치할 때, 백제를 포함한 삼국 사신들이 가서 이를 참관하고 황제에게 사리를 청하여 하사를 받았다는 이야기이다.²¹⁾ 사리를 받은 삼국의 사신들은 각자 자신의 고국에 돌아가 탑을 세우고 공양을 했다.²²⁾ 중국의 기록에 비하면 상당히 단순하다. 중국에서는 사리가 홀연히 나타나거나 동남아시아의 사신이 조공으로 바쳤다는 기록과 곤륜국에서 사리를 장래해오는 장면을 나타낸 은합을 만들었지만 한국은 중국에서 받아왔다는 기록만 있다. 하지만 삼국의 사신이나 자장법사가 가져간 중국의 사리 역시 남해로(南海路)에서 왔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사리구는 많지만 정작 사리구에서 사리가 나온 것은 많다고 하기 어렵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 황룡사지와 분황사 모전석탑, 감은사지 석탑에서 나온 사리 정도이다(도 2).²³⁾ 미륵사지 석탑 1층 심주석에서 발견된 사리함에서 금제 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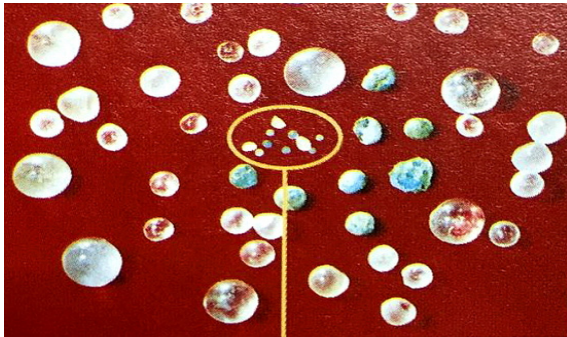
20) 이들 사리는 三分하여 각각 황룡사, 태화사, 통도사에 두었다고 했다. 양의 사신이 신라의 입학승과 함께 사리를 가져왔다는 기록은 중국 사서에도 보이므로 두 나라의 기록이 들어맞는 많지 않은 경우이다.

21) 수 문제는 인수 사리 장엄을 통해 불교의 권위를 빌어 왕권강화를 꾀했다(주경미 2003 81-127).

22) 『광홍명집』 권 17 T2103, 52:217. 주경미는 백제의 사리기가 수대 인수사리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추정했다(주경미 2009, 11-13).



<도 2> 사리, 미륵사지 출토(불교타임즈, 2009. 5.21)



<도 3> 사리, 감은사지 동삼층석탑 출토(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71)

병이 나왔고 그 금제 사리병에서 사리가 나왔다. 이보다 앞선 시기의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에서는 사리가 나오지 않았고, 비슷한 시기인 634년에 건립된 분황사 모전석탑에서 나온 사리기에서도 사리 4과가 발견되었다.²⁴⁾ 삼국시대의 사리는 미륵사지 석탑과 분황사에서 나온 셈이다. 사리기와 함께 발견된 금판에 새겨진 명문에 의해 미륵사지 석

23) 통일 직후인 송림사 전탑, 감은사 동·서 삼층석탑 등에서 나온 사리기에서도 사리가 발견됐다.

24) 일제강점기에 발견된 분황사의 사리기는 사리함에서 나온 동전으로 인해 고려시대에 재납입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리기와 사리는 삼국시대의 것이라는 주경미 선생의 교시를 따른다.

탑은 639년에 건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석탑에 봉안된 사리는 그 이전에 백제에 전해졌을 것이다. 통일 직후인 682년에 세운 감은사 석탑 발견 사리기에서도 약 10여과의 사리가 발견되었는데 이들 역시 통일 이전에 신라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도 3).²⁵⁾ 문헌대로 사리가 모두 중국에서 전해졌다고 하더라도 중국에 들어간 사리는 곤륜을 비롯하여 대개 동남아에서 전해졌다고 볼 수 있다.²⁶⁾

Ⅲ. 향과 향목의 유입

불교문화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의례이다. 의례에서는 절차에 맞게 의식을 진행하면서 사악한 것을 몰아내는 정화(淨化)의 의미로 향을 쓴다. 단순히 불전에 공양하기 위해 향을 피우기도 하지만 의례를 하는 공간을 미리 정화하기 위해 향을 쓰기도 한다. 『삼국사기』에는 법흥왕 15년(528)에 양나라에서 의복과 향을 보냈다는 기록이 나온다(『三國史記』卷第4『新羅本紀』第4 法興王 15年). 그러나 아무도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를 몰랐는데 신라에 와있던 목호자가 “이것을 사르면 향기가 나는데, 신성(神聖)에게 정성을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신성한 것으로는 삼보(三寶)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첫째는 불타(佛陀)이고, 둘째는 달마(達摩)이고, 셋째는 승가(僧伽)입니다. 만약 이것을 사

25) 감은사 동석탑에서는 사리함 내의 유물이 흩어져 발견되었으며 유리제품과 함께 54과의 사리가 발견되었다고 알려졌지만 사리병의 크기를 보아 실제 사리는 10여 과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70-71).

26) 중국 기록에 ‘홀연히 나타난’ 사리는 또한 홀연히 스스로分身하여 여러 과로 증식하는 신이를 보인 이야기가 종종 나온다. 사리의 신비함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동시에 사리의 출처를 밝히지 않으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사리 봉헌 기사는 많지 않다. 『集神州三寶感通錄』에는 진나라 의희 원년(405)에 임읍 사람이 사리를 갖고 있었는데 재를 올리는 날마다 사리에서 빛이 났다는 기록이 있다. 중국 본토의 사리 神異 가운데 출처가 명확한 예이다. 『집신주삼보감통록』상권 <神州의 산천에 숨겨진 보물 등을 밝히는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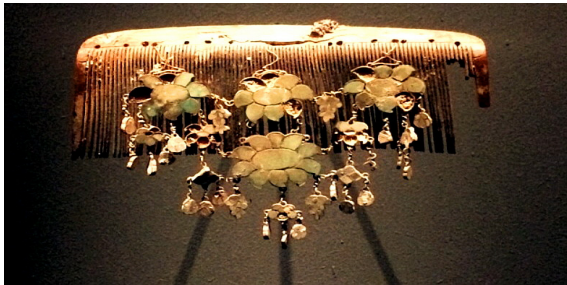
르면서 소원을 빌면 반드시 영험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며 향을 살라 공주의 병을 낫게 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삼국사기』 『백제본기』 무왕(武王) 35년(634)에는 왕이 왕흥사를 짓고 매년 가서 향을 피웠다는 대목이 나온다. 신라도 마찬가지로 612년 김유신이 산에 가서 향을 피우며 하늘에 고했다는 기록, 사불산(四佛山)에서 향이 끊이지 않게 했다는 기록(624년)이 전한다.²⁷⁾ 왕과 귀족들도 향이 무엇인지 몰랐던 상태에서 약 100여년 사이에 향이 널리 알려졌고, 절이나 산에서 공양하는 물품이 되었다. 물론 이를 쓸 수 있는 신분은 제한되어 있어서 왕이나 귀족에 국한되었고, 여전히 구하기 어려운 값비싼 물품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러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오는 향의 출처 또한 불분명하다. 삼국 통일 이후 계속된 당과의 무역품에도 향이라는 물질은 등장하지 않는다. 당에서 보낸 주요 회사(回賜) 품목은 비단과 도자기였고, 신라에서 보낸 것은 금, 은, 개, 인삼, 우황이었다(권덕영 2008). 향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보면 향 자체가 이 시기까지 동북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물질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향과 침향(沉香), 전단의 일종인 고급 목재 자단(紫檀), 동남아가 서식지인 비취조(翡翠鳥)의 깃털로 짠 목도리, 슬슬(瑟瑟), 열대 지방에 서식하는 바다거북 등껍질로 만든 빗등도 신라의 교역 물품이었다(도 4).²⁸⁾ 침향은 불전에 공양하는 향으로도 썼지만 약재의 원료가 되기도 했다. 단단한 나무 자단은 중요한 불교물품을 만들거나 가구를 만드는 재료였다. 결코 생필품이 아닌 이러한 사치성 물품은 신라에서는 나지 않는 재료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27) 왕흥사는 『三國史記』卷第27 『百濟本紀』第5, 김유신은 『三國史記』卷第41 『列傳』第1 에 있으며 열전에는 김압의 향화 이야기도 있다. 사불산의 기록은 『三國遺事』卷第3 塔像第4 <四佛山掘佛山万佛山>조.

28) 비취조는 파랑새목 물총새과에 속하는 17~25cm 가량의 새로 당시 중국, 우리나라에는 캄보디아의 새로 알려졌다. 작은 새의 깃털로 짠 목도리는 최고의 사치품이었을 것이다. 비취조에 대해서는 <https://ja.wikipedia.org/wiki/%E3%82%AB%E3%83%AF%E3%82%BB%E3%83%F> (검색일: 2017.11.12.)

신라의 상인들은 이를 동남아시아에서 구했을 것이다(『三國史記』卷 33 雜志 第2).²⁹⁾ 반드시 신라의 배가 동남아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물품을 구하는 일은 가능했고, 지금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서 신라 사람들이 동남아의 여러 나라와 그 산물에 대해 무지했다고 볼 수는 없다.³⁰⁾



<도 4> 대모로 만든 빛, 8세기, 신라(사진: 필자)

특히 침향은 지금까지도 베트남, 캄보디아가 원산지로 알려졌는데, 이는 향과 향목의 원산지와 관련한 과학적 분석 결과가 뒷받침한다. 천황이 도다이지(東大寺)에 헌납한 보물을 보관한 창고인 정창원(正倉院)에 있던 향목을 분석한 결과 동남아산 나무로 판명된 바 있다. <전천향>이라고 불린 침향목을 포함하여 정창원 소장 침향은 거의 모두

29) 이에 관해서 기존의 역사학계는 중국을 통해 구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시기에는 직접 동남아의 상인과 교류했을 가능성이 크다.

30) 『대당서역구법고승전』 등의 기록에는 바람을 잘 타면 광주에서 수마트라까지 1달 가량 걸렸다고 한다. 엔닌은 한반도 남부에서 절강성까지 3일이 걸린다고 썼다. 엔닌이 활동한 9세기말까지 동아시아 해상교통에서 신라의 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과연 최종 종착지를 절강성에 국한시켰을지 의문이다. 엔닌 만이 아니라 엔친(圓珍) 역시 852년 신라상인 欽良暉의 배를 타고 입당했다. 신라 배를 이용하여 중국 楚州, 蘇州에서 황해를 사선으로 횡단하는 항로에 대해서는 박남수(2009a, 1-33) 참조. 특히 신라 상인의 루트는 登州-泗州-楚州-揚州-明州-泉州 였던 것으로 추정됐다. 천주와 광주는 그다지 먼 거리도 아니고, 천주 자체도 국제항으로 발돋움 하던 때였으므로 이들 항구에서 동남아시아 상인과 교역했을 가능성이 있다.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생산된 것으로 밝혀졌다(도 5)(米田該典 2008, 57-60).³¹⁾ 천황의 보물을 헌납한 756년 이전에 동남아시아 산물이 일본 땅에 들어온 것이다. 이에 앞서 덴지(天智) 천황 9년(671)에 천황이 법흥사(法興寺)에 가사와 금발(金鉢), 상아, 전단향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어 전단향이 값비싼 물품으로 왕실에서 사원에 내려주는 귀중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연민수 등 2013b, 374-375).³²⁾ 신라에서는 비취모, 공작미(孔雀尾), 슬슬, 대모 등의 사치를 금한다는 금령(禁令)이 흥덕왕 9(834)년에 내려진다. 진골 이하의 신분은 대모로 만든 장식, 자단(紫檀), 침향목을 수레에 쓰지 못한다거나 진골 이하 여인의 슬슬 빗을 금한다는 것이다. 성골만 쓸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신분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은 사치성 물품이 수입되었음을 의미한다(『三國史記』卷33 志2 色服조, 車騎조).³³⁾



<도 5> 침향, 정창원 소장 (奈良國立博物館, 2004, 115)

-
- 31) 정창원 소장품은 쇼무천황의 물품을 그의 사후인 756년에 헌납한 것으로 최하 9000 점 이상의 유물이 있으며 그 가운데 향과 약의 원료인 침향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한 시료분석을 통해 산지를 확인한 것이다.
 - 32) 동남아시아 선박과의 교류를 천황의 왕실과 귀족들이 통제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 33) 이들 물품이 페르시아를 통해 신라에 들어왔다는 연구가 현재까지의 경향이다(김창석 2006, 93-128).

실제 향목이 우리나라의 탑에서 발견되었다. 1959년 칠곡 송림사 전탑을 해체, 수리하던 중에 발견된 사리장치에서 7개의 향목과 보리수 열매 1개가 발견되었고, 1966년의 불국사 서석탑 수리시에도 향목이 발견되어 국보 126-16으로 지정되었다(도 6).³⁴⁾ 미륵사지 석탑에서도 향목이 발견되었다. 석가탑에서는 유향(乳香, *Olibanum*), 골향(骨香) 등의 향 4포가 같이 발견되었다.³⁵⁾ 서석탑, 즉 석가탑의 사리기는 1038년 수리 당시 다시 납입한 것이지만 향과 향목은 석가탑 건설 당시에 넣은 것이 섞여 있으므로 늦어도 8세기 중엽 이전에 신라에 온 것들이다(김수철·이광희·박상진 2009, 218-225).³⁶⁾ 송림사의 향목은 이보다 더 이른 7세기 후반의 것으로 김유신이 향을 태우던 때의 것이다. 이들은 모두 7세기 중엽 이전에 불전에서 의 공양을 위해 향을 피우고, 탑에 봉헌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음을 알려주는 예들이다.



<도 6> 향목편, 석가탑 수습(불교중앙박물관·불국사 편 2010, 63).

-
- 34) 불국사에서 발견된 향목은 불교중앙박물관, 불국사 편, 『불국사 석가탑 사리장엄구』(불교중앙박물관, 2010), pp. 63-6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토 상황에 대해서는 박경은(2009, 84-87).
- 35) 유향은 감람과에 속하는 유향나무의 껍질에서 나오는 수지를 말린 것이고, 중동과 아프리카가 원산이며 향으로 태우거나 한약재로 쓴다. 골향은 침향의 일종이며 뼈처럼 생겼다고 해서 골향이라고 부른다(허준 2014, 95).
- 36) 김수철·이광희·박상진, 『침향 수종 분석』, 『불국사 석가탑 유물 保存處理·分析』(국립중앙박물관·불교중앙박물관 편, 2009), pp. 218-225. 향목들을 수종 분석한 결과 일부 나무는 소나무과, 단풍나무과로, 침향은 동남아시아산으로 추정되었다.

유향은 『주서(周書)』에 페르시아의 산물로 나온다. 아마도 처음에는 페르시아의 산물로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에 소개되었을 것이다.³⁷⁾ 그러나 이는 일부에 불과했고 점차 남해를 통해 동남아시아를 거쳐 중국에 들어왔다.³⁸⁾ 5세기부터 인도네시아는 장뇌, 후추, 소합향 등을 중국과 거래했다(O. W. Wolters, 1967). 형식은 조공이었지만 실제로는 교역이었고, 현지 특산물이 주류를 이뤘는데 그중에 다양한 향과 향목이 들어있었다. 『송사(宋史)』에는 점성(占城, 베트남 중부)의 특산물로 침향을 들고 있다(『宋史』 「外國傳」 역주1, 291).³⁹⁾ 침향은 양대부터 이미 베트남의 특산으로 알려져 『양서』 「제이전」에는 임읍에서 침목향이 나는데 ‘그 나무를 베어 수년간 쌓아 썩혀서 속 마디만 남게 하면 이를 물에 넣어도 뜨지 않고 가라앉기 때문에 침향이라 부르고 그 중 가라앉지도 뜨지도 않는 (낮은 품질의) 향을 잔향(淺香)이라 부른다’고 했다.⁴⁰⁾ 침향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중부의 특산물이기도 하지만 중국에 유입된 것은 대부분 베트남 산물이었을 것이다.⁴¹⁾ 『송사』에 의하면 995년에 점성의 왕이 대모(玳瑁) 10근, 용뇌(龍腦) 2근, 후추 200근, 침향 100근, 단향 160근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고, 유사한 내용이 여러 건 나온다(『송사』 「외국전」 역주, 303-304). 양대 이래 베트남 중부에

37) 唐物이 일본에서 중국 물건을 통칭하듯이 이 시기 波斯가 페르시아 물건의 통칭으로 쓰인 듯하다. 물건의 명칭과 생산지가 동일한 이름으로 불린 것이다. 파사라는 이름으로 몰약과 소합향이 같이 쓰였을 것이다(Wolters 1967).

38) 양나라에 페르시아 사절단이 530, 533, 535년에 세 차례 왔다고 하지만 실제로 7세기 이전까지 페르시아와 중국이 바다를 통해 접촉한 흔적은 없다고 한다. 이에 관해서는 Wang(1958, 53).

39) 향의 품질에 따라 가장 질이 좋은 것이 침향이고 그 다음이 전향이다. 침향을 만드는 나무는 학명이 *Aquilaria agallocha*로 팔꽃나무과의 상록교목으로 이 나무의 수지를 이용하여 만든 향이다. 용안의 향기가 난다고 하여 蜜香으로 불리기도 했다. 인도와 동남아에 자생하는 일부 나무에서만 침향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40) 문맥상 낮은 품질로 판단된다(『梁書』 「諸夷傳」, 141-142). 동일한 내용이 『남사(南史)』에도 실려 있다. 『山林經濟』에는 진랍산 침향을 상품으로, 점성산을 중품, 슈리비자야산을 하품으로 쳤다(박남수 2009b, 351에서 재인용).

41) 이 추정에는 중국 정사 중에서 침향에 관한 기록이 베트남에 집중되었고, 인도와 인도네시아 부분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있었던 나라들에서 중국에 막대한 양의 침향을 공급했고, 이것이 하사품의 형태로 중국의 각 지방과 우리나라, 일본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6세기 이후에는 한국과 일본 역시 동남아시아와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각종 향과 향목을 입수했을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정창원에 전해지는 향들의 성분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나는 향과 같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침향이 가장 중요하지만 동남아시아와 중국, 한국, 일본 간의 교류로 전해진 향과 향목은 다양하다. 이른 시기의 예로는 판판이 양 중대통 원년(529)에 바친 침당향 수십 종과 534년에 바친 침당향(詹糖香)을 들 수 있다(『梁書』 『諸夷傳』 역주, 175-176). 518년에는 간타리에서 향약(香藥)을, 530년과 535년에는 탄탄(丹丹)이 여러 가지 향과 약을 공헌했다(『梁書』 『諸夷傳』 역주, 178). 이 나라들은 모두 말레이 반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⁴²⁾ 반면 이와 비슷한 6세기 전반의 정사에는 6세기초에 천축이 침향을 보냈다는 기록이 단 한 건 나올 뿐이다. 동북아시아에 유입된 향의 절대량이 동남아 특산임을 시사하는 부분이다.⁴³⁾ 향을 교역품으로 외국에 보냈을 뿐만 아니라 동남아 현지에서도 썼다. 참파에서는 장례를 치른 후에 7일마다 향을 사르고 꽃을 뿌리는 의식을 7번 했다고 한다(『수서』 『남만전』 역주, 186-187).⁴⁴⁾ 향을 피우며 장례를 하는 풍습은 적토(赤土)국에도 있었다(『수서』 『남만전』 역주, 190-194).⁴⁵⁾ 사람이 죽은 후에 화장해서 유골을 향아리에 넣어 강

42) 향을 공헌한 기록은 매우 많기 때문에 본문에서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지만 말레이 시아에 있었던 낭야수국에서는 잔침파울향이라는 향이 많이 나고,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파리국에서는 향목으로 국왕의 수레를 만들었다는 기록도 나온다. 파리(발리로 추정)에서는 522년에 잡향과 약 수십 종을 바쳤다. 향과 향목이 동남아시아의 주요 산물이자 교역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43) 흥미롭게도 『수서』에는 침향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44) 일종의 49제로 추측된다.

45) 적토국은 『수서』에 처음 이름이 나오는 나라이며 말레이 반도에 있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적토에서 사신으로 간 常駿과 王君政에게 龍腦香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나 바다에 넣고 치르는 불교적인 장례 문화가 동남아에 정착되었음을 보여주는 기사인데 불교 전래와 동시에 화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향을 피우는 풍습은 동북아시아에도 전해진 듯하다.

중국 정사를 살펴보면 침향을 포함한 각종 향과 향목은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있던 나라에서 교역을 위하여 중국으로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향의 효과와 약효가 처음 알려진 것은 페르시아의 유향과 감람나무의 수지인 몰약에서 시작됐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점차 동남아시아의 산림에서 생산된 침향 등으로 대체되었다. 이는 ‘신령과의 소통’을 하는 도구이자 불전에 공양하는 용도로, 때로는 약으로 다양하게 사용됐으며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왕실과 소수 귀족층만의 전유물일 정도로 값비싼 물질이었다. 특히 신라가 향을 처음 접한 시점이 6세기라는 점, 각종 석탑 출토품을 보면 동남아시아와 양과의 교류가 증대되었던 무렵에 한국에도 향이 소개된 것으로 보인다. 향의 유입과 수요의 증대는 불교문화의 대중화, 의례의 증가와 맞물려 있었다.

IV. 전단서상(栴檀瑞像)과 불교 조각

인간의 형상으로 불상을 만들지 않았던 무불상(無佛像) 시대를 거쳐 불상이 처음 만들어졌다. 불교에서는 불상을 처음 만든 사람을 코삼비의 우전왕(優填王, Udyana)이라 하고 그가 처음 만든 불상을 우전왕사모상이라고 부른다.⁴⁶⁾ 우전왕이 어머니 마야부인에게 설법을 하기 위해 도리천에 올라간 석가모니를 그리워하며 만들었다는 설화가 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전왕사모상은 전단목으로 만들었다고 하여

46) 우전왕사모상 이야기는 『增壹阿含經』卷28, 『觀佛三昧海經』卷6 등에 나온다. 아함경은 남전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에 속한다. 384년의 曇摩難題 번역본과 397년의 僧伽提婆 번역본이 있었으나 전자는 전하지 않는다.

이 전승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전단목이 나무 중에서 최상등급이었음을 말해준다. 나무의 물질적 성질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고 그 가운데 특별한 나무를 선호하고 높이 평가하여, 그 나무로 불상을 만들어 예배의 대상으로 삼은 일은 불교와 함께 신화가 되어 동북아시아로 전해졌다. 전단으로 조각한 불상에 대한 언급은 『고승전(高僧傳)』권제1 축법란(竺法蘭)부터 나오기 시작하여 당대로 들어갈수록 늘어난다.⁴⁷⁾ 전단목으로 만든 불상을 특별하게 취급했던 기록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⁴⁸⁾ 나무의 물질적 성격이 상을 만드는 재료가 되기에 적합하게 여겨지고, 그로 인해 나무가 아니라 나무로 만든 상이 예배 대상으로 신성시되는 일은 불교와 함께 전해졌다. 그런데 이 생각이 구체화되는 데는 동남아시아산 전단목의 역할이 컸다.

양 천감 2년(503) 푸난의 왕 사야발마(闍耶跋摩, Jayavarman, 재위: 484-514)가 양나라에 사절을 보내자 양의 황제는 그를 안남장군 부남왕에 봉했다. 그의 뒤를 이어 서자로 왕이 된 유태발마(留陁跋摩, Rudravarman)는 천감 18년(519)에 전단서상(梅檀瑞像)과 보리수잎, 화제주(火齊珠), 울금, 소합(蘇合) 등을 보냈다(『梁書』『諸夷傳』, 164).⁴⁹⁾ 원문에는 “천축의 전단서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천축에서 만든 불상인지는 알 수 없다. 옥 에오(Oc Eo) 등 베트남 남부와 중부 지방에서 발견된 목조불상들을 보면 푸난 현지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

47) 축법란은 불교를 처음 중국에 전한 승려이므로 그의 전기에 전단상 그림 이야기나 나온 것은 처음부터 우전왕의 전단상 설화가 잘 알려졌음을 의미한다. 玄奘의 『大唐西域記』에도 전단상에 대한 언급이 종종 나오는데 다른 나무로 만든 불상에 관한 이야기는 특별히 쓰지 않았기 때문에 불상은 전단목으로 만든다는 암묵적인 이해가 있었던 듯하다. 전단으로 만든 우전왕상이 호탄에서 보여준 신이에 대한 기록도 있다. 우전왕상으로 불리는 양식적 특징을 지닌 전단서상에 관해서는 임영애 (2012, 7-34).

48) 송나라 湘州 현령 何敬叔이 전단목으로 불상을 만든 이야기, 양무제가 전단향으로 만든 불상이 나라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이를 맞아들여오게 한 이야기 등이 있다. 『集神州三寶感通錄』 중권.

49) “復遣使送天竺梅檀瑞像”. 화제주는 붉은 구슬이라는 뜻이지만 유리라고 본다. 소합은 소합향나무 (Liquidambar Orientalis Miller)의 수지를 말한다.



<도 7> 목조불입상,
6세기, 베트남
(사진:필자)

다(도 7). 전단나무라는 말과 그 재료의 상징성이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점은 우전왕상이나 우전왕사모상이라는 말 대신 ‘전단서상’이라는 명칭을 쓴 것에서 드러난다. 푸난과 양 두 나라에서 전단서상이 우전왕이 만든 최초의 불상이라고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단서상’에는 불상의 정통성, 즉 ‘원래 인도에서 만든 진짜’라는 점을 주장하여 상의 가치를 높이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양대를 중심으로 동남아에서 불상을 보낸 기록이 여러 건 나온다. 사야발마는 484년에 남제(南齊)로 천축 출신 승려 나가세나(Nagasena, 那伽仙)을 보내 금루용왕상과 백단상을 바쳤고, 503년에는 산호 불상을 보냈다(『南齊書』「蠻·東南夷傳」, 48-56). 유태발마는 대동 5년(539)년에 무소를 바치며 자기 나라에 불발(佛髮)이 있다고 하자 황제가 사문 석운보(釋雲寶)에게 명을 내려 푸난에 가서 이를 맞아오라고 명했다.⁵⁰⁾ 중대통 원년(529) 5월에 판판에서는 상아 불상과 탑, 침단(沉檀) 등 향 수십 종을 바쳤고, 534년에는 보리국의 진신사리와 그림을 그린 탑, 보리수잎, 첨당향(詹糖香)을 바쳤다. 탄탄에서는 530년에 상아 불상과 탑 각 2구, 화제주, 면포, 향과 약을 보낸 기록이 있다. 후대의 기록이지만 992년에는 중부 베트남인 점성의 승려 정계(淨戒)가 동제향로와 금제방울, 용뇌를 헌상하기도 했다.⁵¹⁾ 6세기경에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불상과 탑을 헌납했다는 기록이 남아시아에서 온 사절단의 경우보다 훨씬 많다.⁵²⁾

50) 같은 내용이 『梁書』「諸夷傳」<海南諸國>조(163-164)와 『南史』「夷貊傳」<海南諸國>조(262-263)에 같이 실려 있다.

51) 판판과 탄탄의 기록은 『梁書』「諸夷傳」(176-177). 송대 이후 중국과 동남아시아간 예 공적, 사적으로 오고간 물품에 대해서는 『諸蕃志』<志物>을 참고하기 바란다.

동남아시아 외에 공식적인 사절단의 형식을 취한 나라에서 불상과 탑을 바쳤다는 기록은 정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⁵³⁾

반면 540년 푸난의 왕이 석가상과 경론을 요청하여 양무제가 이를 보내주었다는 기록이 『불조통기(佛祖統紀)』에 실려 있다. 옥 에오 지역 봉 테(Vong The)와 주워 링 썬(Chua Linh Son)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두 구의 불상은 양나라의 불상과 관련이 있다(도 8, 9).⁵⁴⁾ 판판



<도8> 불입상, 6세기,
베트남 봉 테 발굴
(국립중앙박물관 2015, 148)



<도9> 불입상, 6세기,
베트남 주워 링 썬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2015, 149)

-
- 52) 인도에서 보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으며 단지 사자국, 즉 스리랑카에서 義熙 연간(405-418)에 옥불상을 보냈는데 10년 걸려서 중국에 도착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옥불상을 와관사에 봉안했다고 하나 사실상 그 출처는 명확하지 않다. 10년 걸려 당도했다는 점, 다른 조공물품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면 사자국과의 직접적인 교류인지 미심쩍다(『梁書』『諸夷傳』, 195). 같은 시기 천축에서 불상을 보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 53) 개별적으로 승려들이 왕래할 때 지니고 오간 기록은 『고승전』 등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흔한 일은 아니다.
- 54) 필자는 이전의 글에서 루이 말레레가 발굴했다는 이 불상이 양무제가 보낸 상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강희정 2009, 54-55). 현재까지 중국 남조의 불상에 대해서는 현전하는 예가 적고 비교할 만한 상이 많지 않아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양대 중국 불상이 푸난에 전해진 것만은 명확하다.

이나 푸난에서 양에 보낸 불상은 남아있지 않지만 양에서 푸난으로 보낸 불상은 전해지는 셈이다. 근래 캄보디아 남부 캄퐁 참(Kampong Cham)에서 발굴된 보살상은 백제의 조각으로 추정된다(도 10).⁵⁵⁾ 이 보살상은 연화대좌 하단부를 제외하면 하나의 틀을 이용해 만든 통주식 주물로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금동상에 주로 쓰인 방법으로 조각되었다. 배면이 움푹 들어간 것과 하단부로 보면 삼존불의 협시였을 가능성이 크다. 양 옆으로 옷자락이 지느러미처럼 펼쳐진 양식은 6세기 전반 동위(東魏) 양식 조각에서 기원하여 삼국시대 백제의 금동보살상에



<도 10> 동제보살입상, 6세기,
 캄보디아 캄퐁 참 출토, 프놈펜 박물관
 소장(Loise Allison Cort, Paul Jett eds.
 2010, 45)



<도 11> 보살삼존상, 6세기,
 백제, 양양 진진사지 출토
 (문화재연구소 제공)

55) 이 상은 2006년에 발굴되어 현지에 알려졌다. 이에 관해서는 Cort and Paul eds(2010) 참조. 본고 작성 도중, 최근에 이 상을 다룬 논문이 나왔음을 알게 됐다(후지오카 유타카 2016, 225-226). 두 글에서는 모두 이 상과 함께 발굴된 인왕상을 합금의 성분 분석을 통해 중국제품으로 비정했다. 중국 조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하고 쉬운 길이지만 금동상을 전수 조사한 것도 아니고, 구리와 주석의 금속비율이 10% 이상 차이나지 않는다면, 5% 미만의 차이로는 산지를 확정할 수 없다고 본다. 더욱이 구리 광산이 거의 없는 한반도에서 중국 재료로 동불을 만들어 성분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참고할 만하다(민병찬 2015, 152).

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근래 발굴된 양양 진전사지 출토 보살삼존상이나 백제 지역인 부여 군수리 등에서 발견된 보살상들과 유사한 양식을 보인다(도 11).

우리나라의 기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백제와 푸난의 관계를 암시하는 기사가 실렸다. 흠명천황 4년(543) 백제 성명왕이 전부 나솔 진모귀문, 호덕 기주기루, 물부 시덕 마가모 등을 보내어 부남의 보물과 노예 2구를 바쳤다는 내용이다(연민수 등 2013a, 351).⁵⁶⁾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직접적인 사절단이 왔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삼국의 대외 교섭이 반드시 중국과 일본에 국한되고 양국에서 나지 않는 산물을 이들 두 나라를 통해서만 구했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일본서기』에는 백제 관련 기사를 제외하면 푸난과 곤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⁵⁷⁾ 이 점은 오히려 일본이 견당사(遣唐使)를 보내기 이전에는 백제나 통일신라를 통하여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은 동남아의 산물을 접하고, 그 정보를 알게 됐음을 시사한다.

V. 동남아시아 물품의 유통과 물질문화 연구의 가능성

일본 도다이지 정창원의 보물 가운데 동남아시아산 물품이 신라 사신이 가져갔거나 신라와의 교역에 의한 입수품이라는 연구가 있다(박남수 2011, 39-69).⁵⁸⁾ 정창원 보물 만이 아니고 752년 신라의 김태렴이

56) 성명왕은 성왕으로 보고 있다. 역주에서는 백제가 양을 통해 부남의 보물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노예까지 얻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57) 641년에 백제가 곤륜의 사신을 바다에 던져 죽였다는 기사가 나온다(연민수 2013a, 135).

58) 이 글에서는 신라인들이 중국에서 동남아 물품을 구입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한편으로는 신라의 대당 조공품에 침단목으로 만든 萬佛山과 대모 등이 있어서 의아

일본과 거래한 물품 목록인 <매신라물해(買新羅物解)>에도 백단향, 울금향, 오색용골 등의 약재가 보인다(박남수 2009b). 양적으로도 상당한 물량이지만 이 목록에는 심지어 정향(丁香), 정자(丁字)도 보여서 매우 흥미롭다. 잘 알려진 대로 정향은 인도네시아 말루쿠 제도에서만 나는 향신료이기 때문이다.⁵⁹⁾ 문제는 신라 상인들이 유통시키거나 소비한 동남아시아 물건의 출처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사학계에서는 중국을 통해 동남아시아 물품을 입수하고 신라는 이들을 일본에 전하는 중개무역을 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대부분의 경우에 페르시아인이 신라에 왔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도 동남아시아의 상선이 왔을 가능성은 전혀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엔닌(圓仁)의 일기에는 바람을 잘 타면 중국의 주요 항구에서 한반도 남부 해안까지 3일이 걸린다고 했다. 이보다 이른 시기인 7~8세기에 바닷길로 인도로 간 47인의 승려 중에 8명이 신라 승려였는데, 의정(義淨)을 비롯해 배를 이용한 중국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광주에서 수마트라까지 1달이 걸린다고 했다.⁶⁰⁾ 이미 이 시기 슈리비자야는 해상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었고, 해상의 패권을 놓고 인근 국가와 다툼을 벌였다. 페르시아에서 신라까지 배를 이용한다면 동남아시아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다. 페르시아부터 신라까지 광역 해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중간에 위치한 동남아시아와 중국 남부의 항구에서 물물교환 형식의 교역을 하는 편이 훨씬 쉽고 위험 부담이 적었을 것이다. 9세기에 편찬된 『일체경음의(一切經音意)』에는 곤륜의 배[崑崙舶]가 중

스러운 부분이 있다.

59) 매대 물품목록은 박남수(2009b, 345-352)를 참고하기 바란다. 다만 여기서는 『諸蕃志校注』, 『西陽雜俎』에 근거하여 정향이 곤륜, 교주, 愛州 이남에서 나는 산물이라고 했다. 段成式 등의 관련 지식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정향 거래는 인도네시아 상인에 의한 매대로 주목할 만하다. 또 9세기말에 신라에서 백단을 재배했다는 기록을 들어 백단향을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백단향 자체는 근세까지 인도 특산이었고, 30년 이상 자라야 연필심만한 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60) 『大唐西域求法高僧傳』에 실린 승려들의 행로를 분석한 결과이다.

중 중국 남동해안에 왔으며 매우 튼튼하고 오랜 시간 파도를 견딜 수 있어서 먼 거리 항해에 적합하다고 썼다.

당과 인도와의 공식적인 관계가 656-658년에 재개된 것이 남해 교역이 서구로 확장된 최초의 공식적인 기록이며 이 무렵에 페르시아인의 중국 남해에서의 활동이 본격화됐다는 지적도 중요하다. 또 684년부터는 광주에서의 교역이 악화일로였다. 남해로 온 상선들을 관리들의 부패와 이문 착취로 인해 광주자사 류원귀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후, 광주를 비롯한 광동 일대의 항구는 부침을 거듭했다. 742-749년에는 광동 일대가 소용 휩싸였고, 안사의 난 이후 남중국에서의 교역은 쇠퇴했다. 과도한 수탈로 인해 8세기 중엽 많은 상선들이 광주를 버리고 교지, 즉 하노이를 주요 교역항으로 택했다는 지적을 감안하면 이 시기 신라가 어디에서 동남아시아의 물품들을 구했는지의 의문의 여지가 있다(Wang 1958, 73-76).⁶¹⁾ 792년에 영남의 주지사는 “최근에 값진 물건들이 모두 안남으로 간다. 중앙에서 관리를 보내 (안남의) 시장을 맡아주길 바란다”는 청원을 냈을 정도이다(Wang 1958, 76).⁶²⁾ 이 시기의 혼란으로 교역이 원활하지 않았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신라에서의 동남아시아산 사치품 이용은 급증했고 일본에도 다량 공급했다. 이미 급성장한 투르판과 남조(南詔)가 763년에 실크로드로 가는 길을 막았고 그나마 장안으로 향하는 길은 하노이-강릉 루트였다. 현재로서는 신라의 동남아 물품 입수 경위에 관한 의문을 풀 근거가 부족하다. 하지만 근래에 급격히 늘어난 난파선의 발굴과 출수품의 다양성은 점

61) 760년에 양주가 무자비하게 약탈당하고, 수천의 페르시아, 대식국 상인들이 살해됐고 선박 교역을 관리하던 환관 呂太一이 제거됐으며 769-772년 사이에 해마다 겨우 4-5척의 배만 들어와서 극심한 물품 부족에 시달렸다고 한다.

62) 794년에는 광서의 夷蠻이 폭동을 일으켜 항공서 내륙, 강릉으로 가는 길이 막혔고, 816년에도 다시 폭동이 일어나 약 10년간 이 지역의 혼란이 계속됐다. 안남에서도 803, 819-820년에 반란이 이어졌고, 809년에는 베트남 중부에 있던 환왕이 공격을 했다. 이 무렵부터 878년까지 다시 교역의 주도권은 광주로 넘어갔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차 그 실마리를 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당대 들어 기록과 유물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동남아시아 사신 이 서역 및 동북아 여러 나라들만큼 비중이 커진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오는 물품의 물질적 가치와 중요성이 높았기 때문인데, 반드시 동북아시아에서 구하기 힘든 사치품이거나 귀중품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대모, 비취조 깃털, 공작과 같은 단순한 자연물로서의 희귀성을 선호한 것도 있지만 불교 사상과 의례의 전파와 궤를 같이 한 것들도 적지 않다. 향과 같이 불교적으로 반드시 중요한 물질이 있고, 사리와 향목처럼 신성과 직결되는 것도 있다. 불교 자체는 인도에서 시작됐으나 물질을 통한 불교의 대중화에는 동남아를 통한 바닷길 교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신성은 때로는 사리와 같은 물질 자체, 혹은 의례용 도구와 같은 인공의 가공품을 매개로 시각화되거나 구체화된다. 신성을 담보하는 물질적 매개물은 단순한 물성을 지닌 것들을 ‘불교적 물질’로 전화시킨다. 이들은 다시 신도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성에 의지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불교의 대중화와 불교 문화의 확산에 기여한다. 그런 의미에서 동남아시아를 통한 해상 실크로드는 단순히 물품을 사고파는 교역루트의 역할을 한 데 그치지 않고, 중요한 문화의 전파루트로 기능했다고 할 수 있다.

투 고 일: 2018년 1월 15일

심사완료일: 2018년 2월 2일

게재확정일: 2018년 2월 2일

참고문헌

『高僧傳』

『廣弘明集』

『南齊書』

『三國遺事』

『三國史記』

『宋書』

『隋書』

『梁書』

강희정. 2009. “푸난 불교조각의 연원과 전개.” 『미술사와 시각문화』 8: 40-67.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김은사지 동삼층석탑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 2015. 『고대불교조각대전』. 국립중앙박물관.

권덕영. 2008. “고대 동아시아의 황해와 황해무역- 8, 9세기 신라를 중심으로.” 『사학연구』89: 1-47.

김수철·박상진·이광희. 2009. “침향 수종 분석.” 국립중앙박물관·불교중앙박물관 편. 『불국사 석가탑 유물 保存處理·分析』. pp.?-?.

김창석. 2006. “8~10세기 이슬람 제종족의 신라 왕래와 그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44: 93-126.

노태돈. 2003. 『예빈도에 보인 고구려: 당 이현묘 예빈도의 조우관을 쓴 사절에 대하여』. 서울대학교출판부.

민병찬. 2015. “금동반가사유상의 제작방법 연구-국보 78호·83호상을 중심으로-.” 국립중앙박물관. 『국제학술 심포지움 자료집: 고대 불교 조각의 흐름』. pp.148-166.

박경은. 2009. “항류.” 국립중앙박물관·불교중앙박물관 편. 『불국사 석가

답 舍利器·供養品』. pp.84-87.

박남수. 2009a. “圓仁의 歸國과 在唐 新羅商人의 對日交易.” 『한국사연구』 145: 1-29.

_____. 2009b. “752년 金泰廉의 對日交易과 『買新羅物解』의 香藥.” 『한국고대사연구』 55: 341-391.

_____. 2011. “8세기 新羅의 東아시아 交易과 法隆寺 白檀香.” 『한국사학보』 42: 39-69.

배영동. 2007. “물질문화의 개념 수정과 연구 전망.” 『한국민속학』 46(1): 233-264.

불교중앙박물관, 불국사 편. 2010. 『불국사 석가탑 사리장엄구』. 불교중앙박물관.

비취조. <https://ja.wikipedia.org/wiki/%E3%82%AB%E3%83%AF%E3%2%B%E3%83%F>(검색일: 2017.11.12.)

연민수 외. 2013a. 『譯註 日本書紀 2』.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13b. 『譯註 日本書紀3』. 동북아역사재단.

임영애. 2012. “‘優填王式불입상’의 형성·복제 그리고 확산.” 『美術史論壇』 34: 7-34.

주경미. 2003. “隋文帝의 仁壽舍利莊嚴 研究.” 『중국사연구』 22: 81-127.

_____. 2009. “백제 미륵사지 사리장엄구 시론.” 『역사와 경계』 73: 1-32.

허준. 한불학예사 편집실편. 2014. 『국역 동의보감4 - 탕액 침구편』. 한불학예사.

후지오카 유타카. 2016. “중국 남조 조상의 제작과 전파.” 『미술자료』 89.: 215-264.

張達宏(짱다홍)·王長啓(왕창치). 1984. “西安市文管會收藏的幾件珍貴文物”. 『考古與文物』.

奈良國立博物館(나라국립박물관). 2004. 『法隆寺-日本佛教美術の黎明』. 奈

良國立博物館.

田中一美(다나카 가즈미). 1993. “都管七箇國盒の圖像とその用途.” 『佛教美術』 210: 15-30.

米田該典(요네다 가이스케). 2008. “정창원 보물, 향, 향목류의 과학조사와 그 의의.” 부산대학교 한국전통복식연구소. 『한국전통복식연구소 학술심포지움』. pp.57-60.

Cort, Loise Allison, and Jett, Paul eds. 2010. *Gods of Angkor: Bronzes from the National Museum of Cambodia*. 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Wang, Gungwu. 1958. *The Nanhai Trade: The Early History of Chinese Trade in the South China Sea*. Singapore: Times Academic Press.

I-Tsing. translated by Takakusu Junjiro. 1982. *Record of the Buddhist Religion as Practised in India and the Malay Archipelago (AD. 671-695)*. New Delhi: Munshiram Manoharlal Publishers.

Kang, Heejung. 2015. "Kunlun and Kunlun Slaves as Buddhists in the Eyes of the Tang Chinese". *KEMANUSIAAN* 22(1): 27-52.

Kieschnick, John. 2003. *The Impact of Buddhism on Chinese Material Cul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Liebner, Horst Hubertus. 2014. *The Siren of Cirebon: A Tenth-Century Trading Vessel Lost in the Java Sea*. Ph. D. Diss., The University of Leeds.

Lowie, Robert H. 1937. *The History of Ethnological Theory*. Holt R&W.

Waugh, Daniel C. 2007. "Richthofen's "Silk Roads": Toward the Archaeology of a Concept". *The Silk Road* 5(1): 1:10.

Wolters, O. W. 1967. *Early Indonesian Commerce: A Study of the Origins of Srivijay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Abstract

The Maritime Trade of Buddhist Materials between Southeast Asia and Northeast Asia

Kang, Heejung
Sogang University

The maritime Silk Road steadily expanded with the enormous logistics, with the development of shipbuilding industry and sailing. Along with the technological improvement of navigation and ship manufacturing, maritime Silk Road had steadily been extended due to the massive quantity of goods being transported. Since Buddhism had been introduced to Northeast Asia, numbers of monks left for pilgrimage to India via Southeast Asia by sea. They returned with some materials, which will be offered to Buddha and other religious rituals. Monks were not the only group that used the maritime Silk Road. Many countries in Southeast Asia gathered various items for trade including Buddhist materials. Silk Road was a road exploited for trading both supplies and culture.

The reason why Southeast Asia was regarded important in those times is that the supplies they own were evaluated significant and of high value. Moreover, unique natural objects and materials needed for spreading Buddhism and its rituals, such as sarira and aromatic tree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Buddha's divinity, were included in their

supplies. Buddhism was initiated in India, but the trade of the sea road through Southeast Asia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preading Buddhism through material. The divinity of the Buddha becomes visualized and materialized by the material itself, such as a sarira, or artifacts, such as ritual crafts. These materials contribute to spreading Buddhist cultures and popularizing Buddhism in that it inspires the believers' belief and highlights the invisible divinity. Maritime Silk Road through Southeast Asia had not only been used as a trade route, but also assumed the role of culture transmission route.

Keywords: maritime Silk Road, sarira, kingfisher, aromatic tree, clove, Funan, Panpan, Persia